

슈틸리케호, “승점 22점 반드시 얻겠다”

현재 승점 4점 기록 남은 8경기 승점 18점 필요 까다로운 원정 경기 얼마나 승수 챙기느냐가 관건

“남은 홈경기 전승을 기록해 반드시 승점 22점을 획득하겠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향한 장도에 오른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종예선 홈경기 전승을 목표로 잡았다. 승점 22점 획득해 순조롭게 러시아로 가겠다는 계산이다.

대표팀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세렘반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2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내년 9월까지 팀당 10경기를 치르는 최종예선에서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한다.

3위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한다. 지난 1일 홈에서 중국을 3-2로 제압했던 한국은 시리아전 무승부로 1승1무(승점 4)가 됐다.

2연승을 달린 우즈베키스탄(승점 6), 골득실에서 앞선 이란(승점 4)에 밀려 A조 3위를 기록 중이다.

초반 2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분명 최고의 출발은 아니다.

슈틸리케 감독도 “시리아전에서는 승점 1점을 획득했다기보다, 2점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2연승을 달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남은 경기를 통해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종예선에서 승점 22점을 확보해야 순탄히 본선행에 성공할 것이라 보고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양이다.

현재 승점 4점을 기록 중인 한국은 남은 8경기에서 승점 18점을 더해야 한다. 6승2패 혹은 5승3무1패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원정 경기에서 얼마나 승수를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이란, 중국,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 경기를 남겨뒀다.

내달 열리는 이란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7무12패로 뒤진다.

테헤란에서 열린 6번의 경기에서는 2무4패로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다.

국가적으로 축구부 조성에 힘쓰고 있는 중국, 카타르 원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초반 선수를 질주 중인 우즈베키스탄도 기세가 무섭다.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홈 경기를 모두 잡아야한다.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원정에 대한 부



지난 6일(한국시간) 오후 말레이시아 세렘반 파로이 툰쿠 압둘 라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다.

담이 가중된다.

슈틸리케 감독이 “남은 홈 경기에서는 전승을 기록해야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한국은 내달 카타르와 수월월드컵경기장에서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이란을 차례로 안방에 들인다.

그간 슈틸리케호는 홈 경기에 강했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10번의 홈 경기에서 8승1무1패를 기록했다.

한 번의 패배는 슈틸리케 감독이 막 지휘봉을 잡았던 지난해 2014년 코스타리카전 1-3 패배다.

/김민근 기자



호원대 무도경호학부, 세계무예마스터십 메달 잔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무도경호학부(학부장 이명찬) 학생들이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호원대 학생들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한국대표로 출전해 금·은·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하성(무도경호 4)을 필두로, 김동현(무도경호 3), 김지웅(무도경호 3), 김영준(무도경호 3), 전나연(무도경호 2), 정다훈(무도경호 2)이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7일 치러진 우수 남자부 개인전 장영준이 10점 만점에 9.68점으로 1위인 금메달을, 김동현이 0.03점의 근소한 차이인 9.65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부 개인전 남남에서는 김지웅이 9.55점으로 금메달, 김영준이 9.5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여자부 개인전 전나연이 9.21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8일 치러진 우수 남자부 개인전 장영준이 9.38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무도경호학부 이명찬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대표로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영광이고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2016 리우패럴림픽 개막... 12일간 열전 돌입

160여개국 4300여명 장애인선수 22개 종목 출전... 한국, 종합순위 12위 목표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대축제인 2016 리우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막을 올렸다.

8일(한국시간)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160여개국 4300여명의 장애인선수가 22개 종목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

한국 리우패럴림픽 대표선수단은 총 139명(선수 81명·임원 58명)이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1개 이상, 종합순위 12위권 진입이 목표다.

리우올림픽 여자유도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브라질의 하파엘라시우바(24)가 어둡어득한 밤에 성화를 들고 리우의 상징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에 올랐다.

이회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장도 개막식 전 성화주자로 시내 일부 구간을 뛰었다.

개막식에는 미국의 스노보드 선수이자 영화배우인 에이미 퍼디(37)가 의족을 하고 삼바춤을 추었다.

퍼디는 2014소치동계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다.

미국의 방송프로그램인 ‘댄싱위드 더 스타스’ 결승전에 올라 의족을 하고 춤 솜씨를 과시했다.

그는 19세에 수막염에 걸려 양쪽 무릎 아래 부분을 잃었다.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은 37번째로 입장했고 기수는 이하결(휠체어 테니스)이 맡았다.

북한은 124번째로 입장했다.

개막식은 오전 6시부터 8시30분까지 KBS 1TV가 생중계했다.



8일(한국시간)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2016 리우패럴림픽'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민근 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야구 해설가인 하일성(68·사진)씨가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송파구 삼전동 사무실에서 하씨가 목을 매 숨겨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하씨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씨가 숨지기 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부인에게 보내려다가 만 흔적은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족과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하씨가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것이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씨는 지난 7월 ‘이는 사람의 아들이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949년 서울 출생인 하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프로야구 방송 해설가로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양곡중·고, 환일고 체육교사를 거쳐 1979년 중앙방송 야구 해설가로 데뷔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지냈다. 재임 기간 국가대표 야구단장으로 활동하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수상, 제2회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